

출장보고

- PPP Days 2012 참석 -

1. 출장 개요

출장목적

-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UNECE)에서 개최된 민간투자협력사업(PPP) 관련 국제회의(PPP Days 2012)에 참석하여 관련 동향 파악 및 국내 민간투자사업 동향 소개

출장자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공공투자정책실 실장 김정욱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지원실 전문위원 김재영

출장일

- 2012년 2월 20일(월) ~ 2012년 2월 24일(금)

출장일정

- 2012년 2월 20일(월) : 서울 출발, 스위스 제네바 도착
- 2012년 2월 21일(화) : PPP Days 2012 등록, 회의참석, 토론
- 2012년 2월 22일(수) : PPP Days 2012 회의참석, 네트워킹
- 2012년 2월 23일(목) : 스위스 제네바 출발
- 2012년 2월 24일(금) : 서울 도착

2. PPP Days 2012 참석 주요 내용

PPP Days의 역사

- PPP Days는 2006년에 World Bank Institute 주관하에 Infrastructure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PPPI)을 주제로 하여 국제적인 행사로 시작됨.
- 첫 번째 Conference에서는 전 세계의 PPP units 및 기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들을 초대하여 상호간에 최근의 지식과 경험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 각국 참석자들간의 지식공유는 점차 확대되어 갔고, PPP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있어서 국제적인 community로의 역할이 증대됨.
- 2008년에는 World Bank Institute 주관하에 미국 Washington D.C에서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2010년에는 ADB 주관하에 마닐라에서 행사가 개최된 바 있음.

□ Main Theme of PPP Days 2012

- PPP Days는 공공부문 업무 종사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국제회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PPP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PPP 정책과 structuring, financing 등에 관해 경험을 공유하는 forum을 마련함
- 2012년 PPP days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었으며, UNECE, World Bank Institute, ADB가 공동으로 주관함.
- 금번 회의는 이틀간에 걸쳐 PPP practitioners, manager, expert 등이 모여 발표 및 토론을 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3일째는 private sector를 대상으로 business forum을 개최하고 4일째는 사례발표 및 현장방문을 진행함.
- 전 세계 80개국 이상에서 700명 가량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으며, 행사가 진행되는 4일 동안 UNECE, World Bank를 비롯해 여러 나라들에서 행사 booth를 운영함.

< 본 회의 행사장 모습 >



< UNECE를 비롯한 각국별 홍보 booth 모습 >



□ Event Overview

Time	Day 1 • Tuesday, 21 February 2012	Meeting Room
08:30-09:15	<i>Welcome Coffee</i>	Foyer Salle XVII
09:15-10:00	Opening Session	Salle XVII
10:00-11:00	Plenary Panel Discussion: Where are PPP markets heading (Financing Gap)?	Salle XVII
11:00-12:00	Plenary Panel Discussion: Financing Future Growth	Salle XVII
12:00-13:00	Plenary Panel Discussion: The role of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Salle XVII
13:00-14:30	<i>Lunch and World Café</i>	Foyer Salle XVII
14:30-15:30	Plenary Debate: Reassessing the costs and benefits of PPPs	Salle XVII
15:30-16:00	<i>Coffee break</i>	Foyer Salle XVII
16:00-17:00	Parallel clinics on thematic issues in PPPs	
	A.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and PPPs	Salle XVII
	B. Transforming urban and rural spaces through PPPs	Salle XXIV
17:00-18:00	Parallel clinics on sectoral themes in PPPs	
	A. Energy	Salle XVII
	B. Transport	Salle XXIV
	C. Health	Salle XXV
18:00-20:00	<i>Cocktail Reception</i>	Restaurant des

Time	Day 2 • Wednesday, 22 February 2012	Meeting Room
09:00-09:30	<i>Coffee</i>	Foyer Salle XVII
09:30-10:30	Plenary Session: Improving the transparency and governance of PPP arrangements	Salle XVII
10:30-11:30	Plenary Session: PPPs at the sub-national level	Salle XVII
11:30-13:00	Parallel clinics on governance frameworks	
	A. National audit institutions and PPPs	Salle XVII
	B. Preparing PPP Programs	Salle XXIV
	C. Addressing Governance Risks	Salle XXV
13:00-15:00	<i>Lunch</i>	Foyer Salle XVII
14:30-15:00	Lunchtime talk: "2000 Years of PPPs" - Mr. Xavier Bezancon	Salle XVII
15:00-16:00	Parallel clinics on governance - sectoral and thematic aspects	
	A. Improving accountability through PPPs	Salle XVII
	B. Creating public sector capacity	Salle XXIV
	C. Contract management	Salle XXV
16:00-17:30	Plenary Session: Promoting networking activities and fostering capacity-building programs	Salle XVII
17:30-17:45	Closing Reflections and Remarks	Salle XVII
17:45-18:30	<i>Aperitif</i>	Foyer Salle XVII
18:30-22:00	<i>"Swiss Night"</i>	Transport to venue

Time	Day 3 • Thursday, 23 February 2012	Meeting Room
08:45-09:15	<i>Coffee</i>	Foyer Salle XVII
09:15-09:30	Welcome address	Salle XVII
09:30-12:30	Business Forum in parallel sessions	
	Stream A. Japan and Ukraine	Salle XVII
	Stream B. Brazil, Nigeria and Peru	Salle XXV
	Stream C. The Philippines and India	Salle XXIV
12:30-14:00	<i>Lunch and networking</i>	Foyer Salle XVII
14:00-18:00	Business Forum in parallel sessions	
	Stream A. Armenia, Russian Federation and Kazakhstan	Salle XVII
	Stream B. Uruguay and West Africa	Salle XXV
	Stream C. Turkey, Colombia and Vietnam	Salle XXIV
From 17:30	<i>Networking Session</i>	Foyer Salle XVII
18:30-20:00	<i>Dutch Reception</i>	Foyer Salle XVII

Time	Day 4 • Friday, 24 February 2012	Meeting Room
08:30-09:00	<i>Coffee</i>	Foyer Salle XVII
09:00-12:30	Special Session of PPP "Virtual" Site Visits	Salle XVII
12:30-14:30	<i>Lunch</i>	Foyer Salle XVII
14:30-17:30	Fourth session of the UNECE Team of Specialists on PPPs (cont'd)	Salle XVII

□ Public Sector Session(2월 21일~22일)

- 이틀간 진행된 Public Sector Session의 주요 issue는 크게 세가지임
 - 첫 번째는 "Identification and prioritization of PPP projects"로서 여러 많은 나라들에서의 과거 및 현재 경험과 제도적인 부분 그리고 training의 필요성 등이 논의됨
 - 두 번째는 "Governance of PPP procurement"와 관련한 내용임. 그간의 경험을 보았을 때 PPP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의 발굴, 입찰, 평가, 협상, 계약 등까지 많은 절차들이 필요하고, 국가 혹은 지방정부의 PPP 담당부서 외에 예산부서, 조달당국(procuring authorities) 등 많은 기관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의회, 언론 등도 관심을 가짐.
 - 세 번째는 "Contract management"와 관련한 내용으로 현재 많은 국가들이 계약의 집행(contract enforcement)을 비롯해 계약관리와 관련한 여러 쟁점들을 경험하고 있음.
- 최근 몇 년 동안의 국제적인 금융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emerging market에서는 PPP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활기를 띄어 왔으나, 한편으로는 PPP가 여전히 비용효과적인 방법인지에 관한 의구심도 증가하고 있음.
- 최근의 국제적인 금융대란은 PPP financing 비용을 가중시킴에 따라, 많은 시장들에서 동력이 감소하였고 금융여건은 더욱 위축됨. 이와 관련해 금융비용이 커질수록, PPP 사업들에 대해서 VFM이 확보되는 것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고, 첫째날은 이와 관련한 주제들이 다루어짐. 둘째 날은 transparency, governance, accountability 등에 관한 이슈들이 중점으로 논의됨.

□ 첫째날 회의의 주요 내용

- 첫째날 회의는 Opening Session을 시작으로 해서 오전에 3가지 주제에 관한 Plenary panel discussion이 진행됨. 오후에는 "Reassessing the costs and benefits of PPPs"에 관한 plenary debate session으로 시작하여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and PPPs", "Transforming urban and rural spaces through PPPs"에 관한 clinic session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Energy, Transport, Health의 부문별 clinic session이 진행됨.
- Opening Session에서는 금번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한 UNECE, WBI, ADB를 대표하여 Andrey Vasilyev, Clive Harris, Anand Chiplunkar가 인사말을, 스위스를 대표하여 WTO와 EFTA의 대사 겸 상임대표인 H.E. Luzius Wasescha가 환영인사를, KPMG의 James Stewart가 기조연설을 함.
 - Andrey Vasilyev는 PPP Days가 개최된 배경을 소개하고 여러 전문가들간에 네트워크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는 인사말을 건넸으며, Clive Harris는 그간 민자사업의 경험과 최근의 동향 및 시장방향, 향후 민자사업의 역할 등을 소개함.
 - Anand Chiplunkar는 2010년 ADB에서 주관한 회의에 대한 경험, 지난 10년간 아시아 지역 민자사업의 성과 특히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에서의 성과를 소개함.
 - H.E. Luzius Wasescha는 민자사업이 갖는 장점과 그 동안 스위스에서 진행되어 왔던 민자사업의 역사 등을 소개함.

- James Stewart는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정부의 역할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그리고 캐나다의 성공사례소개, 민자사업의 향후 방향(에너지 등) 등에 대한 기초연설을 함.
- 오전 세션에서는 PPP 시장의 가야할 방향, 미래성장을 위한 Financing,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에 관한 주제로 Plenary Panel Discussion이 진행됨.
 - Plenary Panel Discussion은 1인의 좌장을 중심으로 4~5인의 패널이 각 주제별로 각자의 경험과 견해를 소개하고, 회의 참석자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갖는 시간으로 진행됨.
 - 주된 논의의 내용은 정부의 역할이 증대될 필요가 있다는 점, 발달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 등과 같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mutual market을 비롯한 emerging market 등에서 reassessment와 refinancing이 중요해지고 이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등에 관한 내용들이 논의됨.
 - Andy Carty는 에너지, 정보화, R&D 사업 등으로 PPP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논의를 하였으며, Pradeep Singh는 인도와 브라질 사례에 대한 소개 및 Balancing of Risk의 중요성을 논의함.
 - 그 밖에 금융관련 제도적 역할의 중요성, 계약내용 및 기간의 중요성 등이 다루어졌으며, 아프리카와 같은 개도국에 있어서는 인프라 보다는 교육, 보건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Canada의 성공적인 사례가 논의됨.
- 오후 세션에서는 오전의 분위기와는 달리 PPP 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재평가하는 주제를 갖고 열띤 논쟁이 이루어졌으며, 몇 가지 thematic issue들에 대한 clinic session이 진행됨.
 - World Bank의 Clive Harris가 좌장을 맡은 Plenary Debate 세션에서는 우선 칠레 Public Works 부처의 전 장관이었던 Eduardo Bitran이 PPP 사업의 time consistency에 대한 비판으로 논의를 시작함.
 - Bitran은 그간 PPP 사업에 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time consistency와 세대간 불평 등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그간의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PPP 사업에 있어서는 여러 단계에서 정치적인 부분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부분을 비판함.
 - 한국의 김정욱 박사는 지난 10년간 한국 민자사업의 사례 및 성과를 소개하였으며, VFM 분석에 대한 실증적 사례를 설명함. 더불어 ADB와 함께 공동으로 연구한 보고서¹⁾를 소개함.
 - 이 세션에서는 전반적으로 VFM에 대한 반대의견도 많이 개진되었으며, 이용자 비용 등 다른 대안의 마련, 경쟁의 중요성 등이 강조됨.

□ 둘째날 회의의 주요 내용

- 둘째날 또한 첫째날과 마찬가지로 몇몇 이슈들에 대한 plenary session과 parallel clinic session 등으로 회의가 진행됨.
 - 오전에는 우선 "Improving the transparency of PPP arrangement", "PPPs at a sub-national level-governance and implementation challenges"의 두가지 주제에 대한 plenary session을 시

1) KDIADB, 「Public-Private Partnership Infrastructure Projects: Case Studies from the Republic of Korea」, 2011

- 작한 이후 "Governance framework" 관련 3가지 주제에 대한 parallel clinic session이 진행됨.
- 오후에는 "Governance-sectoral and thematic aspect" 관련 3가지 주제에 대한 parallel clinic session을 시작으로 “Promoting networking activities and fostering capacity-building programs”을 주제로 한 plenary session이 진행됨. 이후 H.E. Vladimir Pesevski와 Geoffrey Hamilton의 공동사회로 회의내용을 종합하는 시간을 가짐.
 - 당연한 내용이겠으나, 오전에 진행된 세션에서는 PPP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투명성(transparency), 정보공개(disclosure)는 결국 비용과의 상관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PPP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역할관계는 결국 해당 국가가 얼마나 중앙집권적인가와 같은 정치제도와 연관될 수 밖에 없다는 사항들이 논의됨.
 - 오후에 진행된 “Contract management” clinic session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사례소개와 몇 가지 주안점 등이 논의됨.
 - Lincoln Flor는 라틴아메리카의 사례를 소개하고 입찰제도(Bidding mechanism)의 중요성을 강조함. 또한 재협상(renegotiation)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함.
 - Andy Carty는 유럽의 PPP 사례를 소개하고, 유럽에서는 Infra가 아닌 교육, 의료 등의 서비스 시설이 보다 많기 때문에 그만큼 계약에 관한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David Dombkins는 다른 토론자들과는 달리 오스트레일리아의 Rail-Car 프로그램에 대한 실패사례를 소개하였으며, 단순히 재원조달 부분에 초점을 둔 점과 계약관리 능력의 부족 등을 실패사례의 원인으로 지적함. 따라서 어떻게 계약관리를 매뉴얼화 할지에 관해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서비스제공, 행정, 고객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였으며, 민간과 정부의 입장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상호 win-win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함.
 - 이어진 Plenary session에서는 민간투자사업 관련 역량강화(capacity-building) 프로그램의 육성과 상호간에 네트워킹을 촉진하는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Angelo Dell'Atti는 언어의 문제로 인해 공용언어와 환경적인 토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Rui Monteiro는 각국간에 서로 고민하는 것이 비슷하므로 상호 협력이 필요하며 그간 World Bank에서 knowledge sharing 업무를 진행해온 점을 강조함.
 - David Bloomgarden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의 필요성을, Jan van Schoonhoven은 UNECE에서 그간 Specialist 센터의 설립을 통해 지식공유 및 효율성 향상을 노력해온 점을 강조함.
 - 마지막으로 회의결과를 종합하는 Session에서는 PPP 제도가 여러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여전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며, 금번 회의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각국의 PPP 역량이 확대되길 바란다는 맺음말로 이틀간에 걸친 논의를 마무리 함.

3. 회의 참석의 주요 성과

- 이틀간의 회의내용을 종합해보면, 운영중인 PPP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영국과 같은 경우는 약 800개 이상에 이르고 있고, 유럽 전체적으로는 1,000개 이상이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Refinancing과 Renegotiation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존재함에 따라 신규시장에서는 어떻게 PPP를 제도화하고, 발굴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 또한 여전히 중요한 점이며, PPP 사업의 새로운 분야 확대 등에 대한 필요성 등이 중요한 관심사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전 세계적으로 약 700여명 이상 참석한 금번 회의에서 KDI 김정욱 박사는 한국의 민자사업 동향과 그간의 실적을 소개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
 - UNECE와는 Geoffrey Hamilton을 비롯해 여러 관계자들과 민자사업의 향후 방향, 한국내 Specialist Center의 설립(Roads 혹은 Green Growth 관련 분야) 등에 관한 주제를 논의하였음.
 - World Bank Institute와는 Clive Harris를 비롯해 여러 관계자들과 현재 World Bank에서 진행된 최근의 연구동향 등을 논의하였음.
 - 그 밖에 한국의 민자제도 및 경험 등에 관심을 갖는 여러 국가의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진행하였음.
 - 베트남의 MPI 차관 및 담당자 등은 자국 민자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한국의 민자제도가 갖는 특징, 그리고 BOT가 아닌 BTO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유 등을 논의함.
 - Indonesia를 비롯해 동남아 지역 관계자들과는 향후 예정된 로드쇼 등을 소개함.
- 3일째는 private sector를 대상으로 business forum을 개최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으나, 국내외 민간부문의 참석자는 그리 많지 않아 보여 향후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UNECE의 PPP 관련 Center 구축방향

- PPP 사업의 역량강화 및 Toolkit 마련 차원에서 Geneva에 Headquarter 역할의 “International PPP Center of Excellence”를 설치하고, 사업 부문별 Specialist Center을 각국에 설치하고자 하고 있음.
- PPP Specialist Centers(Final Stage)
 - Research & Training(일본), Training for CIS(러시아)
 - Health(필리핀), small scale Economies(Aruba)
- PPP Specialist Centers(Expression of interest)
 - school(독일), water management(네델란드), prisons(루마니아)
 - seaports(그리스), airport(터키), ICT(아제르바이잔)